



언어 영역

1. ④	2. ③	3. ④	4. ③	5. ③
6. ①	7. ②	8. ②	9. ②	10. ④
11. ③	12. ②	13. ⑤	14. ②	15. ④
16. ③	17. ①	18. ⑤	19. ②	20. ④
21. ⑤	22. ③	23. ②	24. ④	25. ⑤
26. ①	27. ①	28. ③	29. ⑤	30. ⑤
31. ①	32. ⑤	33. ③	34. ⑤	35. ③
36. ①	37. ②	38. ④	39. ①	40. ①

1. 활용 방안의 타당성 판단

정답 ④

‘스’의 ‘발급 받은 현금 영수증에 대한 현금 영수증 복권 추출 제도’는 소비자 측면의 현금 영수증 발급 활성화 방안에 해당한다. 즉, 이는 III-2의 ‘소비자의 측면’에서 활용해야지, III-1에서 활용하는 것(④)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ㄱ)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함으로써 그들의 성실한 소득 신고를 유도하는 것(ㄴ)은 현금 영수증 제도의 시행 배경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 ⑤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된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면(ㄴ), 소비자들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일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소비자 측면의 활성화 방안에 해당한다.

2. 구상 내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쓰려는 글의 주제인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하자.’는 현재에 충실하게 임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③의 ‘죽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행동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의 사례’는 매사에 주체성이 부족한 삶의 태도와 관련되는 것이지, 현재의 삶에 충실히 임하는 태도와는 별 관련이 없으므로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내일은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어도’는 내일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지닌 관용구를 활용하여 현재의 삶에 충실한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현재에서 미래가 태어난다.’라는 볼테르의 말은 미래도 결국은 현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주제를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기에 적절하다.

3. 글다듬기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의 앞뒤 내용을 연결해 보면, 부모님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많이 애쓰시기 때문에 바쁘신 중에도 다른 가족들을 챙겨 주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의 앞뒤 두 문장

은 내용상 인과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은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는 전환 관계의 접속 부사로서, 대개 앞의 내용과는 다른 취지의 내용으로 바뀌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속어이다.

- ㉡ ‘오순도순’은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경우이다.
- ㉢ ‘간식과’라는 말이 뒤의 ‘도와주시고’라는 말과 호응을 이루지 못하므로, ‘간식과’를 ‘간식도 챙겨 주시고’의 형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 나의 가족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므로 굳이 할머니 친구 분에 관한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할머니 친구 분도 그러하다는 내용을 언급하면, 오히려 드러내려는 내용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 ㉤ 처음 부분에서 가족을 소개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삼남매로 가족 수가 일곱 명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삼남매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글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나와 형제들’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도 추가해야 한다.

4. 부사어의 특성 및 역할 이해

정답 ③

ㄴ의 ‘아주’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새’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즉, ㄴ에서 ‘아주’는 ‘새’라는 관형어(문장 성분)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 부사어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① ㄱ의 ‘참’은 ‘예쁘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ㄹ의 ‘참’은 ‘많이’라는 부사어를 수식하고 있다.
- ②, ④ <보기>에서, 부사어가 ‘다르다’나 ‘주다’와 같은 서술어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생략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ㄱ, ㄴ, ㄹ은 이 경우가 아니므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그런데 ㄷ의 ‘애인에게’는 ‘주었다’를 수식하면서 문장에서 꼭 필요한 부사어이다.
- ⑤ ㄷ의 ‘애인에게’는 ‘주었다’를, ㄹ의 ‘많이’는 ‘내린다’를 수식하므로, 둘 다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5~7] 지문 해제

이론과 실천의 문제

이론과 실천의 문제에 대해 조명한 글이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서, 이론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했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찾을 수 있으며, 반대로 실천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입장은 칸트에게서 찾을 수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는 실제 우리의 삶은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행복을 기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앎과 행동이 인간의 삶에서 전체적인 하나를 이루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이론은 실천의 근거를 제시하고 실천은 이론을 현실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 궁극적 의도 파악

정답 ③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 글쓴이의 핵심 관점이 드러나 있다. 즉,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행복을 기약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론과 실천이 전체를 이루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이론은 실천의 근거를 제시하고 실천은 이론을 현실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6. 견해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①

둘째 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과 실천을 구분하고,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덕이 실천적인 덕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성적인 사고는 실천적인 덕을 통해서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①의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는 거리가 먼 설명이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 이론적인 덕이 실천적인 덕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입장은 이론을 중시하는 서구적 전통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덧붙이고 있다.
- ③ 셋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칸트의 견해에 대해 설명하면서, '행동은 ~ 삶의 영역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행동'은 '실천'을 말하는 것이고, '삶'은 '이성'을 말하는 것이다.
- ⑤ 셋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7. 생략 내용의 추론 및 조건에 맞는 표현

정답 ②

[A]에서는 먼저 이론과 실천의 문제를 화제로 제시한 후, 이론이나 실천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중시하면 삶을 현실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론과 실천은 인간의 삶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빈칸에도 이러한 논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지를 담고 있는 내용을 <보기>의 조건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②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론과 실천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한 내용이며, '부실한 모래성'과 '공허한 메아리'는 비유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그리고 문장이 '~은 ...이고 ~은 ...이다.'와 같이 대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①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논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 ④ 논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며, 대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문장도 아니다.
- ⑤ 대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문장이 아니다.

[8~12] 작품 해제

(가) 최승호, 「복어」

생기를 잃은 복어의 모습을 통해서 말을 잃고 생명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건조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무의미하게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도 복어의 상태와 비슷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성(自省)의 목소리를 엿볼 수 있다.

(나) 유하, 「체제에 관하여」

횃집 수족관 속의 산낙지는 주인이 공급하는 산소에 의지한 채 생명을 유지해 갈 뿐이다. 그러나 주인이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진정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의도의 손길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손님이 주문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잔인하고 음흉한 의도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수족관이라는 틀 속에서는 생명의 산소도 결국은 아우슈비츠의 독가스보다 더 잔인하고 음흉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점을 꼬집은 시라고 할 수 있다.

(다) 고진하, 「나무와 기계의 마음」

지주목에 묶여 있는 도시의 나무를 통해 문명의 굴레와 속도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반성적으로 되짚어 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채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원인은 '안락으로 소용돌이치는 욕망의 물결' 때문일 것이다.

8. 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가)는 식료품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복어를 통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적 시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리고 (다)는 생명력이 고갈된 채 지주목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도시의 나무를 통해 문명의 굴레와 속도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반성적인 시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때, (가)와 (다)는 일상에서 관찰한 대상('복어'와 '나무')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②는 적절한 설명이다.

- ① (가)를 이기주의의 측면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③ (나)에서 인간의 이기적 속성에 대한 비판 의식은 엿볼 수 있어도,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은 유추하기 어렵다.
- ④, ⑤ (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다.

9. 작품의 표현상 특징 이해

정답 ②

(가)에 나타난 '깨어져 있었다', '딱딱했다', '부르짖고 있었다' 등의 시구로 볼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는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어미 부분에 들어 있는 '-었-/-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① '복어의 일 개 분대가 /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한 켤의 혀가 /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마지막 부분에서 ‘너도 북어지’라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뻗뻗한 지느러미’,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 느닷없이 /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부분에서 감각스럽게 시상을 전환하면서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시상 전개 양상 파악

정답 ④

(나)의 시적 화자는 ‘투명한 수족관을 바라보며 나는 / 투명하게 깨닫는다.’라고 노래하면서, 횃집 주인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생명의 산소’를 ‘아우슈비치의 독가스보다 / 더 잔인하고 음흉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 즉, 수족관의 산낙자에게 공급되는 산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은 횃집 주인이 아니라 시적 화자인 ‘나’이다. 따라서 ④는 (나)의 시상 전개 양상과 거리가 멀다.

11. 작품의 이해 및 감상

정답 ③

(다)의 시적 화자는 삭막한 도시의 한복판에 이식(移植)되어 지주목에 허리를 묶인 채 변색되어 가는 나무를 보면서, 문명의 굴레와 속도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있다. 따라서 (다)를 고통 받는 소외 계층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③의 이해 및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12. 의미가 통하는 시구 이해

정답 ②

(나)에서 ㉠의 ‘전투력’은 푸른 바다를 누비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던 힘과 연결되므로, 이는 결국 산낙지의 생명력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의 ‘소용돌이치는 욕망의 물결’은 시적 화자가 지향점을 잃은 채 휩쓸려 버리는 세속적 욕망이나 현대의 물질문명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과 대응하는 시구로 보기는 어렵다.

- ① ㉠의 ‘횃집 수족관 속’은 산낙지가 자유롭게 살아가던 본래의 생활 터전이 아니다. (다)의 ‘대리석 바닥’ 역시 나무가 원래 있던 대자연 속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 이식되어 온 도심 속의 삭막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 ③ ㉡의 ‘하루분의 산소’는 수족관 속에서 산낙지가 생명을 지탱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의 ‘몇 개의 지주목’ 역시 삭막한 도심 대리석 바닥에 이식되어 있는 나무를 가까스로 지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 ④ ㉢의 ‘헉헉대는 그들’은 수족관 속에서 횃집 주인이 공급하는 산소에 의해 어렵게 생명을 지탱해 가는 산낙지를 지칭한다. (다)의 ‘가련한 길벗’도 도시에서 몇 개의 지주목에

기대어 존재하는 나무라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 ⑤ ㉣의 ‘진정 생명을 구원하는 손길’은 산낙지가 진정한 생명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원래의 자연 공간과 연결되는 시구이다. 따라서 (다)에서 나무가 원래 존재하던 자연의 섭리와 연결되는 ‘물과 산에 깃든 덕(德)’과 서로 통한다.

[13~16] 지문 해제

형벌의 목적에 관한 견해와 그 의의

형벌의 목적에 관한 대표적인 관점 세 가지를 설명하고, 그 의의에 대해 밝힌 글이다. 즉, 이 글에서는 먼저 형벌은 ‘악에 대한 악’으로서 부과되는 것이라는 ‘응보론’,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일반인이 두려움을 느껴 범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일반 예방론’, 범죄자 자신이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라는 ‘특별 예방론’ 등의 견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날의 형벌은 이 세 가지 관점을 절충하여 형벌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형벌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형사 제도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데에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13. 글의 중심 화제 파악

정답 ⑤

글쓴이는 첫째 문단에서 ‘왜 형벌을 가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관점을 살펴보자’고 언급하고, 둘째 ~ 넷째 문단에서 그 구체적인 견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앞에서 살핀 형벌의 목적에 관한 논의들이 지닌 의의(현실적 의미)에 대해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화제로는 ⑤의 ‘형벌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의의’가 가장 적절하다.

14. 관점의 이해를 통한 구체적 활용

정답 ②

<보기>의 중심 내용은, 형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범죄 욕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따르게 되는 형벌의 두려움이 범죄 욕구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일반인이 두려움을 느껴 범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형벌을 가하는 것이라는 ‘일반 예방론’의 관점과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②가 가장 적절하다.

15. 상황의 분석적 이해와 관점의 적용

정답 ④

㉠의 ‘특별 예방론’은 범죄자가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형벌은 범죄자 자신의 속죄, 개과천선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때 ‘범죄자가 갖는 위협

성'이 개선 가능한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범죄자의 심리나 사회적 환경의 교정,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기>의 상황을 보면, 소년은 생활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부득이 빵을 훔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소년을 돕겠다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소년이 생계를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년은 생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도움의 손길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속죄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소년은 재범의 우려가 없고 형벌이 아니더라도 개과천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훈방 조치하는 것 ㉠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16.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③

㉠의 '상정'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판정하는 일'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옳'이라는 의미로 파악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17~20] 작품 해제

작자 미상, 「김씨열행록」

지방의 장계현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과거에 급제하고 이곳에 사는 연씨와 혼인하여 아들(갑준)을 낳았으며, 벼슬이 시랑에 이르렀다. 장 시랑은 갑준이 16세 되던 해 아내가 죽어 유씨를 후처로 맞이한다. 갑준이 장성하여 김씨와 혼인하는데, 첫날밤에 과한이 신랑의 목을 베어 달아나는 과변이 일어난다. 이에 의심을 받게 된 김씨는 누명을 벗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서게 되고, 결국에는 갑준의 계모 유씨가 주도한 범행임을 밝힌다. 이에 장 시랑은 후처 유씨와 그녀의 소생을 죽인 후 방랑의 길을 떠난다.

한편 친정에 와 있던 김씨는 유복자를 낳고, 그 아들이 세 살이 되자 장 시랑을 찾아 모셔와 지성으로 봉양하고 화씨를 첩으로 맞아들이게 한다. 그런데 후에 방자해진 화씨는 가사를 맡고 있는 김씨의 권한을 빼앗고자, 죽은 유씨의 동생인 관동 태수와 결탁하여 유씨의 죽음이 김씨의 음모라고 모함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시비가 밥에 독약을 넣어 화씨를 죽이려 하나, 그 밥을 장 시랑이 먹고 죽게 된다. 이에 유 태수가 김씨와 시비를 하옥하지만, 나중에 왕의 명령을 받은 형조 판서에 의해 진실이 밝혀진다. 이에 화씨는 교살되고 유 태수는 파직을 당하며, 김씨 모자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 소설은 한 여인의 열행을 구체적으로 엮은 윤리 소설의 유형을 띠고 있는 작품이다. 누명을 쓰게 된 김씨 여인의 열행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고전 소설인 점을 감안하면 사건의 전개나 구성 측면에서 독창성이 엿보이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17. 작품에 드러난 핵심 갈등 파악 정답 ①

'이에 은근히 밖으로 유 태수와 은밀히 결탁하고 안으로는 장 시랑의 뜻을 받기를 더욱 힘써 김씨의 권세를 빼앗으려

하여'라는 내용에 주목하면, 제시된 부분의 핵심 갈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장 시랑의 첩으로 맞아들인 화씨는 집안의 권세를 잡기 위해서 유 태수와 결탁하여 김씨를 모함하려고 있으므로, 핵심 갈등으로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18. 인물의 성격 및 태도 이해 정답 ⑤

장 시랑의 첩으로 들어온 화씨는 집안에서의 권세를 잡기 위해 유 태수와 결탁하여 온갖 계략으로 김씨를 모함한다. 따라서 화씨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⑤는 적절한 설명이다.

- ① 장 시랑의 아들 갑준은 계모인 유씨 부인의 사주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장 시랑이 후처인 유씨 부인을 죽인 것이므로, 유씨 부인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은 아니다.
- ② 유 태수는 죽은 유씨 부인의 동생으로, '경사에 올라가 과거 거하여 일찍이 청운에 득의하여 임금을 섬겨 공명에 나아가 있을 제, 그때에 유씨 부인의 상변(喪變 : 사람이 죽은 사고)을 듣고 심히 참혹하고 괴이하다고' 여기던 중 화씨의 말을 듣고 그녀와 결탁한 것이다. 따라서 유 태수를 불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출세하려는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장 시랑은 화씨의 간교한 말에 속아 김씨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아 주관이 뚜렷한 인물로 보기 어렵다.
- ④ 김씨를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인물로 볼 수는 있으나, 김씨의 적극적인 자세를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타파하려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 상황 전개에 맞는 속담의 적용 정답 ②

앞뒤의 문맥적 상황을 감안하여 접근해야 한다. ㉠에 이어지는 내용은, 화씨가 김씨의 은혜를 입은 것은 물론 어려서부터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속에 다른 뜻을 품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맥적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으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도리어 자기에게 해를 끼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②이다.

- ①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다른 일과 공교롭게 때가 일치하여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③ 자기가 넉넉한 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지내는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의 근심과 괴로움은 알지 못한다는 말
- ④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허물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
- ⑤ 무슨 일이나 보복을 하고 양갈음을 하게 되면 더 좋지 아니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말

20. 사건 전개 양상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④

화씨는 "어린 신랑이 첫날밤을 다 지내지 못하였는데, (김

씨가) 수태하여 남아를 낳은 것이 천하에 희한한 일이라.”라는 식의 간교한 말로 김씨를 참소하였다. 즉, 화씨는 김씨의 유복자인 해룡이 장 시랑의 손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여, 장 시랑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손자 해룡의 비행을 들춰내어 장 시랑에게 고자질했다는 ④는 이 글에서 화씨가 사용한 방법이 아니다.

[21~23] 해제

언어와 문화의 관계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구체적 예를 제시하면서 언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당부한 글이다. 언어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와 세계 인식이 녹아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말에 대한 애정은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길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1. 세부 내용의 이해 및 확인

정답 ⑤

- 셋째 문단에서 우리말과 영어의 어순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말에서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것은 ‘나의 의사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먼저 보이는 우리들’의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먼저인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라는 내용으로 볼 때, 상대방에 대한 관심보다 나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은 영어의 문장 표현이므로 ⑤는 이 글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② 첫째 문단의 ‘언어는 문화의 하위 개념에 속하면서도 문화 자체를 표현하여 그것을 전파, 계승하는 기능도 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둘째 문단에서 ‘친족 관계에 대한 표현에서 우리말이 영어보다 좀 더 섬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 ④ 넷째 문단에서 우리말의 높임 표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우리말이 서열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22. 글쓴이의 관점 이해 및 적용

정답 ③

<보기>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영어를 모르면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영어를 공용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본문의 글쓴이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말에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세계 인식이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말에 대한 애정은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글쓴이가 <보기>에 대하여 입장을 밝힌다면, 영어를 공용어로 삼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줄어들어) 우리 민족 문화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취지의 말(③)을 할 것이다.

23. 사례가 지닌 의미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②

[A]의 사례는, 친족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적 요소가 우리말에 반영되어 친족 관계에 대한 표현이 영어보다 섬세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와 유사한 예에 해당하는 것은 ②로, 쌀을 주식으로 했던 우리는 ‘쌀’, ‘벼’, ‘밥’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영어권에서는 ‘rice’ 하나의 말만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24~27] 지문 해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

물 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에 대하여 설명한 글이다. 물 분자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공유결합에 의해 극성분자가 되며, 이러한 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은 물질의 점성이나 상태를 결정한다. 물 분자들의 결합이 촘촘하면 얼음이 되고,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이 느슨해지다가 끊어지면 수증기가 되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밴드나 순간접착제의 경우도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으로 설명할 수 있다.

24. 글의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첫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물 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에 대하여 설명한 글이다. 따라서 현상(쿨롱의 힘)의 과학적 원리를 특정 대상(물 분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④가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25. 세부 정보의 확인과 이해

정답 ⑤

- ㉠의 바로 앞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쌍극자간 힘’은 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 문단에서 쿨롱의 힘은 극성분자 사이에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쌍극자간 힘’이 극성이 없는 분자 사이에도 작용한다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의 바로 다음 문장에서 ‘전기음성도는 특정 원자가 화학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값’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셋째 문단의 ‘쌍극자모멘트의 벡터합을 구하면 분자 전체의 극성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셋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쌍극자모멘트의 합에 의해 극성이 생기는 분자를 극성분자라 한다.’라고 하였다.
- ④ 셋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의 ‘공유결합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분자 하나가 양전하와 음전하로 갈려 있는 상태를 쌍극자라 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6. 이해와 구체적 적용 정답 ①

㉔에서 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은 물질의 점성이나 상태를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 예로 물 분자들이 촘촘히 결합되어 있으면 얼음이 되고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이 느슨해지다가 끊어지면 수증기가 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㉔의 원리를 활용한 예는 분자들 간에 작용하는 힘에 따라 결합력이나 접착력이 영향을 받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①로서, 프라이팬의 표면을 분자간의 힘이 매우 작은 테플론이라는 물질로 코팅하여 접착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음식물이 잘 들러붙지 않도록 한 것이다.

27. 문맥적 의미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①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㉔의 ‘떠다’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다(지니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다. ‘떠다’가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①로서, ‘(전문성을) 지니다’라는 뜻이다.

- ②, ④ 표정이나 감정, 기운 따위가 겉으로 좀 드러나다.
- ③ 용무·직책·사명 따위를 가지다.
- ⑤ 어떤 빛깔이나 색채 따위를 조금 가지다.

[28~32] 작품 해제

(가)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최치원이 신라 말기의 난세를 절망하여 각지를 유랑하다가 가야산 해인사에 은거할 때 지은 칠언 절구의 한시이다. 시비(是非)하는 소리로 시끄러운 세상을 멀리하고 산중에 은둔하고 싶은 심경을 노래한 작품이다.

(나)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이 노래는 4계절을 각각 10수씩 읊은 연시조로, 작자가 전남 보길도에 은거하면서 지은 작품이다. 각 작품에는 계절마다 펼쳐지는 어촌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부 생활의 흥취가 여음(餘音)과 조화를 이루며 효과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의 주된 특징을 살펴보면, 네 계절에 따른 경물(景物)의 변화를 생생하게 표현하였으며, 다양한 감각적 표현과 우리말의 구사가 돋보인다. 또한, 초장과 중장, 중장과 종장 사이에 여음구를 배치하였다.

(다) 이양하, 『신록 예찬』

이 작품은 5월의 신록이 주는 풍성한 혜택을 찬양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이 글에서 자연 친화적인 자세로 대상에 접근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자연의 혜택과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는 세속적인 삶의 태도를 반성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치밀한 관찰력, 남다른 심미안, 자연과의 교감이 유창한 문체에 힘입어 글의 격조를 높이고 있다. 제재의 특성과 글쓴이의 태도가 잘 조화되어 독자에게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28. 작품의 성격 및 공통점 파악 정답 ③

(가)는 시비(是非)하는 소리로 시끄러운 세상을 멀리하면서 산중에 은둔하고 싶은 심경을 노래한 한시이고, (나)는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거하면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한 연시조이다. 그리고 (다)는 자연 친화적인 자세로 신록의 아름다움과 그 혜택을 예찬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 수필이다. 이렇게 볼 때, (나)와 (다)는 세속적 욕망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③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 ① (가)와 (나)의 화자가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는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② (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 ④ (가)의 경우 자연의 일부(‘호르는 물’)를 통해 세상의 소리를 막아 보려는 태도는 드러나지만, 이를 자연의 순수함과 인간의 비속함을 대조하는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⑤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29. 참고 자료의 적용을 통한 이해 및 감상 정답 ⑤

<보기>에 의하면, 최치원은 당나라에 유학하여 활동한 후 귀국하여 높은 관직에 올라 사회의 개혁에 힘썼지만 귀족 세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최치원은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인해 관직을 버리고 은거의 길을 택한 것이다. (가)는 최치원이 그러한 은거의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지은 한시임을 알 수 있다.

(가)의 첫째와 둘째 구의 내용을 연결하여 이해할 때,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는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흘러 내리면서 울리는 물소리 때문에 가까운 거리의 말소리도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낸 시구이다. 즉, 바위 사이를 흘러 내리는 물소리의 거센을 나타낸 것일 뿐, 개혁을 외면하는 현실을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③ 셋째와 넷째 구에서 ‘시비(是非)하는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 ‘호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다.
- ④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산속에 은거하면서 속세의 소리마저 차단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실 도피에 해당한다.

30. 시행의 표현상 특징 및 시적 의미 이해 정답 ⑤

㉔의 물가에 외롭게 혼자 서 있는 짙은 소나무는, 속세에서 벗어나 혼자서 굳게 살아가고 있는 화자 자신의 모습과 대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㉔을 화자와 대조적인 자연의 모습을 제시한 것(⑤)으로 볼 수는 없다.

- ① ㉔ : ‘지국충 지국충’은 노를 저을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고, ‘어사와’는 노를 젓는 사람이 내는 ‘어기어차’ 정도의 소리를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㉔ : 연잎에 밥을 싸서 준비하고 반찬은 준비하지 말라는 내용이므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㉔ : 배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보며, '내가 갈매기를 쫓는 것이나 갈매기가 나를 쫓는 것이냐'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자연과 합일된 몰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 ④ ㉕ : 단풍이 든 산에 석양이 비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수놓은 비단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31. **개괄적 성격 이해**

정답 ①

(다)에 신록이 주는 혜택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는 수식이 많은 편이며 문장의 호흡이 비교적 긴 만연체로 이루어져 있는 글이다. 그러므로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2. **시어의 시적 의미 기능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⑤

(가)의 화자는 '시비(是非)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에서 '호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의 '(호르는 물)'은 시비(是非)하는 소리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태로부터 산 속에 은거하는 화자를 단절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시어 중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⑤의 '파랑성(波浪聲)'으로, 이 역시 세속의 소리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33~36] 지문 해제

고전주의 회화의 원리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기 직전 상황을 그린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바탕으로 고전주의 회화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글쓴이는 우선 고전주의 회화의 특징으로, 강한 명도 대비와 색채 대비를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강하게 흡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구도의 엄격성을 언급하면서, 화면을 구성하는 조형 요소들의 짜임새 있는 구도는 하나의 완벽한 조형을 이루기 위한 의도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33. **글의 중심 내용 이해와 적용**

정답 ③

이 글은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실례로 하여 고전주의 회화의 원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바탕으로 교양 강연을 한다면, 그 표제와 부제로는 ③의 '고전주의 회화의 원리와 실제 -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중심으로'가 가장 적절하다.

34. **세부 정보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⑤

[A]에서는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구도를 직선의 차원으로 접근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첫 번째는 '화면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의 왼쪽 발 → 소크라테스의 오른쪽 발 → 독배를 건네는 사람의 왼쪽 팔꿈치 →

화면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의 머리'로 연결되는 직선 구도이므로,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이어지는 사선 형태가 된다.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왼손 → 머리 → 오른손 → 독약이 든 잔 → 독약을 건네는 이의 왼쪽 팔꿈치 →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어깨'로 연결되는 직선이므로, 화면의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어지는 사선 형태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머리 → 왼쪽 무릎 → 왼발 →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오른손 → 오른발'로 연결되므로, 화면의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직선 형태가 된다. 이러한 세 개의 직선 구도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은 ⑤이다.

35. **원리의 이해와 구체적 적용**

정답 ③

본문에서 '고전주의 회화의 원리(㉔)'로 언급한 것은, 강한 명도 대비와 색채 대비를 통한 시선의 흡수, 조형 요소들이 하나의 완벽한 조형을 이루도록 하는 구도이다. 조형 요소들의 짜임새 있는 구도는 작가의 세밀한 의도가 반영되는 차원이므로, 의도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개성과 역동성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③)은 고전주의 회화의 원리와 거리가 멀다.

- ① 셋째 문단의 '많은 조형 요소들이 ~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이라는 내용과 연결된다.
- ② 첫째 문단의 '소크라테스와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 슬픔을 다양한 포즈로 표현하고 있다.'는 내용과 연결된다.
- ④ 셋째 문단의 '구도의 흐름은 내려갔다 올라가고 둥글게 도는 등 ~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연결된다.
- ⑤ 둘째 문단의 '보색 대비를 통해 밝고 따뜻한 색의 인물들은 ~ 관객의 시선을 끌어당긴다.'라는 내용과 연결된다.

36. **띄어쓰기의 이해와 사용**

정답 ①

<보기>에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 '-는데'는 붙여 쓰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과 '곳이나 장소, 일이나 것,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데'가 합쳐진 표현인 '-는 데'는 띄어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①의 밑줄 친 '읽는데'에 들어 있는 '데'는 '(읽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읽는 데'의 형태로 띄어 써야 한다.

- ②, ④ '데'가 의존명사이므로, '-는 데'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 ③, ⑤ '-는데'가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37~40] 작품 해제

송기숙, 「개는 왜 짖는가」

폭력적인 권력에 의해 언론이 통제를 당하던 1980년대 초기에 발표된 작품이다. 뛰어난 기자였던 박영하는 외압에 의해 신문 기사가 철저히 통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정치나 시국 관련 이야기를 꺼리게 된다. 인용된 부분에서 또철이의 악행을 기사화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고 마는 박영하의 모습은, 폭압적인 권력 앞에 표현의 자유와 기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무기력한 지식인 계층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7.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②

이 소설은 작품 속에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3인칭 시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아까 그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 뭐가 끄적거리고 싶었다.’, ‘그(또철이)가 무섭다 기보다 귀찮았다. ~ 셰퍼드의 시퍼런 눈도 떠올랐다.’ 등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작품 밖의 서술자는 주로 박영하 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는,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박영하 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38. 자료의 적용을 통한 이해 및 감상

정답 ④

<보기>의 해설에 의하면, 또철이의 악행을 기사화하는 것과 관련된 박영하 기자의 모습은 표현의 자유와 욕망을 상실한, 무기력한 지식인 계층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머니에서 기사를 꺼내 슬그머니 휴지통에 넣어 버린 것’은 현실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영하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려는 의지나 기자로서의 책무를 상실한 무기력한 모습이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① 박영하는 ‘거침없이 내지르고 있는 매미 소리’를 듣고 ‘그 짧은 생애 한순간 한순간을 아껴 내지르는 뭐가 그만큼 절실한 삶의 표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영하는 매미 소리에 취해 있다가 ‘아까 그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 매미 소리는 결국 영하에게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② 이 소설이 표면적으로는 또철이의 악행을 기사화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작가는 결국 이를 통해 당대 현실(폭력적인 권력)을 풍자하고자 한 것이라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③, ⑤ 신문사 편집국의 정치부장이 국장실에서 나와 “제길, 그런 것도 못 쓰면 무얼 쓰란 말이야?”라고 말하며 한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기>의 ‘폭력적인 권력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던 시기’라는 설명을 감안하면, 정치부장이 한 말은 부당한 권력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당대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영하 기자는 정치부장이 한탄하는 그 상황을 접하고 나서, ‘신문에 내기만 하면 저 죽고 나 죽겠다고 독기를 피우던 또철이’를 떠올린다. 이를 <보기>의 설명과 연결하여 접근하면, ‘신문에 내기만 하면 저 죽고 나 죽겠다고 독

기를 피우던 또철이’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권력과 대응된다(③)고 볼 수 있다.

39. 작품 속 세부 요소의 상징성 이해

정답 ①

<보기>의 “개는 짓으라고 있고 신문은 나팔을 불라고 있는 것인데, 개도 못 봐서 짓는 일을 신문 기자가 손 개 엮고 있으란 말이여?”라는 말은 결국 신문 기자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박영하는 언론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 통제를 당하는 상황을 접한 뒤, 신문에 내려고 작성했던 또철이 관련 기사를 슬그머니 휴지통에 버리는데 이는 신문 기자로서의 사명이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영하에게 ‘좁쌀영감의 차가운 눈(㉠)’과 ‘셰퍼드의 시퍼런 눈(㉡)’이 떠오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과 ㉡은 결국 기자로서의 사명이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영하의 내면 심리가 투영된 것(①)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0. 바뀌 쓴 표현의 의도 및 효과 파악

정답 ①

- <보기>는 1인칭 서술자인 ‘나’가 편집국의 분위기 및 인물들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A]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편집국의 분위기 및 인물들의 상황을 참새 떼들의 모습에 비유하여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를 [A]로 바꿔 쓰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으로는,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암시한다.’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 ② 둘 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서술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성립될 수 없는 설명이다.
- ③ 서술의 초점을 전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 다 편집국의 싸늘한 분위기와 인물들의 상황을 서술한 내용이다.
- ④ 서술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참새 떼의 상황을 통해 비유적으로 서술한 [A]가 오히려 긴장감이 감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긴장감의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 ⑤ <보기>에 오히려 예전에 문제가 된 ‘최○○ 장관 관련 기사’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A]로 바꿔 쓰는 과정에서 사건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삭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